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 경 혜\*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에 대한 실증연구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에 관련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13-18세의 청소년 15명과 청소년 자녀를 둔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focus group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불우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과정과 의미가 다양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성취감, 자신감, 자아 존중감의 상승 등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아이들까지 차이의 폭이 컸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르바이트의 동기, 일터에서의 피드백의 성격, 부모의 지원과 관여 정도 등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시작이 비록 일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목표가 뚜렷하였던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 어려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 자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은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많은 긍정적 측면을 발견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일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을 쓰는 과정까지 아주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음도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긍정적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I. 들어가는 글

요즘 청소년들은 '소비홍수에 깊이 젖어있다'고 한다. 물질주의, 소비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소비지향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소비지향적 문화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화의 진공상태를 소비문화가 포섭하는 측면(안영노, 1994)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점도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익숙한 소비문화, 소비생활과 이들의 현실적 구매력, 경제적 자원의 보유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돈 가뭄에 시달리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돈을 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부족한 용돈을 메우기 위해 택하는 아르바이트가 기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보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다. 어느 전문가가 지적하였듯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면 ‘탈선학생’이나 ‘불우 청소년’을 떠올리는 (조한혜정, 2000) 경향이 있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일과 소비생활과의 관련성, 청소년기 취업경험이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등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일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서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서구에서는 이렇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한 체계적 실증연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논의가 소비주체로서의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소비문화의 문제점이나 과소비 경향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혹은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일을 해서 벌게된 돈은 어디에 쓰는가 등의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부모자녀간 갈등은 없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부모의 역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공존한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행해진 실증연구들은 크게 학업 수행과 일의 관련성, 가족 관계와 일의 관련성, 비행 행동과 일의 관련성 등의 연구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일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일을 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또한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하는 청소년들은 우선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의 통제를 덜 받으며,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시장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성인을 모방'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비행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Greenberger & Steinberg와 같은 발달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돈을 버는 청소년이 성인 흉내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며, 서구 사회에서는 마약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비행의 강도도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Mortimer, Finch, Pimenel 등의 사회학자들은 청소년기 일의 부정적 영향을 관찰한 이러한 연구들이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점을 비판하면서, 청소년기 일의 단기적 영향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장기적 영향에도 주목할 것을 지적한다. 이들은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청소년의 일의 경험을 접근하여 보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 역할 수행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나,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의 직업 목표나 직업 가치,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 내지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possible self)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Markus et al., 1990). 그리고 일과 학과 공부를 병행함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가 만족할 경우,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

다고 보았다.

한편, Hansen & Jarvis(2000)는 이렇게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에 대하여 상반되는 관점과 연구결과가 공존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일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간과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여부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가지기 보다,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는가 여부에서 나아가서 청소년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였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을 선택하였는지, 직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청소년기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과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일에 대해 일을 통해 얻는 보람, 가치, 기술 획득의 기회와 같은 내재적 의미(intrinsic value)를 부여하기 보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일의 성격이 서비스 직종이나 단순 노무와 같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의 학자들은 최근 청소년들의 부업이 주로 서비스 직종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Arnett, 2000).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주로 서비스 업종에 몰리게 된다는 문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신문사의 추정에 의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가운데 9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한겨레 21, 2000). 주유소나 편의점 종업원도 10대 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대중매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행하는 청소년의 의식조사 등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는 정도이다. 서울 YMCA 청소년 센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20.3%, 실업계 학생의 47.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92.1%는 아르바이트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싫어 할 것 같아서’, ‘번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짐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일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도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한시간 급료가 2000원 내외로 노동부가 정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불우 청소년들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때문인지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학문적 관심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일의 경험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의 일상에 나타나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탐색적 심층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13-18세의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와 관련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청소년 제보자들은 서울·경기 지역의 학군 또는 경제적 수준 등<sup>1)</sup>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평소 안면이 있었던 고등학교생들에게서 소개를 받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명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 6명의 총 15명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가 대개 청소년 자녀의 일상에 관여하고 따라서 아버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표집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방법과 focus group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focus group 방법을 시도한 것은 예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단답식의 짧은 대답을 하는 경향 및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하여 솔직한 정보를 주려하지 않는 경향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focus group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친한 친구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제보자들은 일대일 면접보다 쉽게 마음을 털어놓았고 많은 정

1)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 강서지역, 강북서 지역, 강북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접촉하였다. 경기 지역의 경우, 안양, 수원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면접에서 얻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focus group의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제보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이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면접 내용은 미리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으며, 이를 모두 풀어서 자료화하였다.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집, 학교, 패스트푸드 점 등 제보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였다.

## 2. 응답자들의 특성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특성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Focus group I에 속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서울 광진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D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연구자는 이들을 학교 상담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주선을 부탁한 학교 선생님께서는 반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의 평범한 아이들을 면접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Focus group I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 본 청소년이 2명, 하지 않은 청소년이 2명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Focus group II의 경우는 목동 지역 살고 있는 청소년들로 평소 안면이 있는 고등학생의 친구들이었다. 만난 장소는 오목교 역의 한 패밀리 음식점이었다. Focus group II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용돈을 받으면서도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수중에 돈이 많은 아이들로 보였다. 오토바이 배달을 해본 정민이는 인터뷰를 한 날도 '하루배달'을 나갈까 생각중이라고 하였다.

서울의 강북서 지역에서는 연신내 근처의 M 여고에 재학 중인 Focus group III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2년 이상 일을 해 본 여학생이 한 명 있었고, 나머지 세 학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었다. 일을 해 본 여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려 왔고, 그 일이 학업에 조금은 지장을 주었지만 그 점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개별 면접을 한 병선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강남 지역의 S고에 다니고 있었다. 병선이의 이야기는 부모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적극 격려하는 집에서 다른 응답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례였다. 병선이의 경우는 인생에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바에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 이외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였다. 병선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러한 자신의 성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 1 : 청소년 응답자의 특성

no.	구분	이름/성별	나이	학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종류
1.	인터뷰	승철 / 남	만 17세	고 2	경험 있음	주유소
2.	인터뷰	남운호/ 남	만 17세	고 2	경험 있음	주유소, 당구장
3.	인터뷰	황병선/ 남	만 19세	고 3	경험 있음	막노동, 신문배달, 페스트푸드
4.	인터뷰	현미 / 여	만 15세	중 2	경험없음	
5.	Focus group I	배현주 / 여	만 16세	고 1	경험 있음	전단지 돌리기
6.		염수정 / 여	만 16세	고 1	경험 없음	
7.		김진아 / 여	만 16세	고 1	경험 없음	
8.		손지선 /여	만 16세	고 1	경험 있음	
9.	Focus group II	정기 / 남	만 17세	고 2	경험 있음	전단지
10.		수광/ 남	만 17세	고 2	경험 있음	전단지
11.		정민 / 남	만 17세	고 2	경험 있음	신문 배달, 오토바이 배달
12.	Focus group III	승연/ 여	만 18세	고 3	경험 없음	
13.		미연/ 여	만 18세	고 3	경험 없음	
14.		정애/ 여	만 18세	고 3	경험 없음	
15.		정연 / 여	만 18세	고 3	경험 있음	

표 2 : 어머니 응답자의 특성

no.	구분	이름	나이	학력	직업	비고
1.	인터뷰	현미 엄마	44	대학원 졸	교수	전일취업
2.	인터뷰	운호 엄마	44	중 졸	도시락 업체 주방	파트타임
3.	인터뷰	민아 엄마	39	고 졸	킴스 클럽 근무	파트타임
4.	인터뷰	승철 엄마	40	고 졸	식당 주방	파트타임

수원에서 개별면접을 한 운호와 승철이는 주유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같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아니라, 둘 다 실업고를 다닌다는 점도 같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이들의 집안형편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차이가 났다. 윤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점까지 부모의 적극적 지지와 관여가 있었다. 반면 승철이는 아르바이트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눈치챈 부모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와 영향의 차이로 연결된다.

응답자 중 유일한 중학생인 현미는 만화 매니아를 자처하는 평촌의 2학년 여학생이다. 돈 모아서 “사고싶은 만화책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마땅한 아르바이트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나서지도 않았다. 현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외에 어머니의 일을 도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부모가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4명의 어머니 면접자 중 현미엄마와 민아엄마는 딸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 현미엄마는 원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며, 실제 자신의 일의 일부-원고정리, 컴퓨터 입력 등-를 현미에게 시키고 약속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민아엄마는 민아가 인문계 고등학생이니 대학이 우선이며, 따라서 학교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는 반대하며, “게다가 딸이므로 더욱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윤호엄마와 승철엄마는 모두 “돈벌어 보면 돈벌기가 얼마나 힘든가 알 것이다”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아르바이트를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전업주부이던 이들이 IMF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식당주방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면서, 아들들이 제 용돈을 버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들의 공통적 걱정거리이다.

## IV. 결과분석

### 1.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와 일의 종류

면접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학 때 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한다. 수원에서 실업고를 다니는 승철이의 이야기와 서울 목동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정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업고 학생들 중에 특히 많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아요. 거의 저희반은.. 거의 남자애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타고 피자집에 가는 애들도 있고요, 짜장면 배달도 있고, 저희 반만 대여섯명이 짜장면 배달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롯데리아나 그런데 같은데 하는 애들 있고, PC방에서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패밀리마트에.. 편의점 같은데서 일하는 애들도 있고... PC방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면 곧바로 가서 밤을 샌 다음에 거기서 아침에 학교 오는거... PC방에서.”(승철)

“짜리시, 전단지 돌리기 그런거를 애들이 많이 하죠. 주위에 많아요.”(정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전단지 돌리기 등의 아르바이트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할만한 아르바이트가 의외로 많아요. 그 패스트푸드 점에서 거의 학생들을 쓰기 때문에 종류는 조금밖에 없는데요, 학생들 수요가 되게 많아요. 패스트푸드 점 가 보면 맨날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붙어 있잖아요. 그거 대학생들이 그런거 잘 안하잖아요. 보수도 약한데.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은 약간 어리고, 고등학교 1,2학년 애들이 거의 다 거기 있다고 보면 되요, 음식 만드는 애들이나 치우는 애들이나...”(병선)

“KFC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고등학생이에요. 주말이나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전에 일하면 다섯시 여섯시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끝나면 놀러 가거나 그러구요. 오후에 평일에는 거의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일학년.”(정연)

앞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응답 청소년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일의 종류 역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지적되는 전단지 돌리기와 패스트푸드 점 근무, 주유소, 그리고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오토바이 배달은 급여도 높고 남자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아르바이트이다. 오토바이 운전은 면허를 필요로 하지만 승철이나 정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면허인 학생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흔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민이와 병선어도 무면허로 짜장면 배달,

만두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오토바이 배달하면 한달에 거의 백만원. 방학때 일하면은요, 하루에 3, 4만원씩 받으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그 오토바이 타는거 더 주는.. 위험 수당.. (그럼, 개네들은 그 돈 주로 어디에 쓰니?) 거의 다 그 돈 가지고 오토바이 사는데.... (그아이들이 배달할 때는 자기 오토바이가 아니구나?) 예. 가게 오토바이죠. (근데, 그아이들이 그 운전하는 법은 어떻게 아는거야? 자격증 같은거 있어야 하지 않나?) 뭐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무면허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격증 따려면 좀 어려우니까 무면허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승철)

## 2.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두가지 다른 유형이 관찰되었다. 하나는 부모가 주는 용돈이 청소년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소비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용돈을 비교적 충분히 받는데도 목돈이 드는 특별한 물건이나 하고싶은 일이 생기는 경우이다.

“(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구요. 돈이... 용돈 너무 부족해요. (얼마정도 받아요?) 지금 받는 거요? 한달에 4만원”(수정)

면접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용돈의 액수는 3만원-4만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윤호나(10만원) 정민이처럼(30만원 정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의 용돈을 받지 않고 수시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쓰는 액수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청소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인 것으로 거론되는 휴대폰이나 통신비는 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학생들은 옷이나 악세서리, 군것질 등에 주로 돈을 쓰고 친구생일이 많이 들은 달은 특히 돈이 모자란다. 남학생들은 PC방, 오락실에 쓰는 돈이 많고 옷값도 만만치 않다. 이성친구가 있으면 남녀학생 모두 쓰는 돈의 양이 크게 늘어나며 발렌타인데이나 기념일이 있는 달이면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그런데, 부족한 용돈을 부모로부터 받기가 쉽지않다. 아이들의 소비욕구를 이해 못하는 부모,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에게 일일이 이해시키기 어렵고(수정, 현주, 진아)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으며(승철), 경제적으로 여유없는 부모에게 번번히 달라고 하기 미안하기도(승연)하다.

수정 :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요. 물가도 모르는 것 같구요. 놀 때 얼마큼 쓰는지도 모르고 계산 것 같아요. 놀 때 오천원 이면 다 끝나는 줄 알구...

현주 : 롯데월드 한번 가면은 만원...

진아 : 맞아. 만원이면 되지?

현주 : 만원이면 남겠네?

수정 : 그런 거 보면 답답하고

(Q: 그럼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입장료가 사실 얼마데...)

수정 :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안 줘요.

모두 : 맞아

“왜 엄마 아빠 요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안되서 힘들 때 맘아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한테 돈 이야기 못하겠어요. 쓰고는 싶은데 엄마아빠 보면 힘들어하시니까 그럴 때는 말 못해요.”(승연)

“돈을 타서 쓰는데요. 돈 좀 엄마~ 천원, 이천원 줄래? 그러면 뭐 할려고? 아이~ 잠깐 놀게 그러면, 너 PC방 가려고 그러지? 안 줘. 안 주신다고... 엄마 아빠 둘 다 안 주세요.”(승철)

용돈이 부족할 때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빌붙어 지내고”, 종종 “엄마에게 학원비나 책값을 부풀려 타내고”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뒹구는” 등 다양한 전략을 써보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눈을 돌리게 된다. 정연이처럼 “친구하고 매일 같이 아르바이트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현주처럼 “이력서 내기만 하면 되게 다 써서 준비해가지고 KFC를 며칠 연속 가서 지켜보기도”하면서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는다.

그런가 하면, 용돈이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지만 사고 싶은 특별한, 비싼 물건이 생기거나 하고 싶은 일에 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부모님이 용돈을 달라는대로 주시고 그래서 한달에 대략 30만원 정도를 받아서 쓴다는 정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속한다. 정민이는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위해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게에 있는 오토바이도 실컷 타고 돈도 벌고 그래서 정민이에게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였다. 정민이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 병선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오락기를 사고 싶은데 “고등학생이 오락기 산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기가 뭐해서” 맥도날드에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병선이의 같은 반 친구 중에는 4달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에게서 보조받지 않고 방학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친구도 있다.

만화광임을 자처하는 현미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모이는 ‘코스프레’에 참여하는데 목돈이 든다. 현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의 소비가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하여 절약하고, 돈을 버는 적극적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코스프레는 중독성이 강해요. 행사장 밖과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저번에 15만원 정도 들었어요. 10만원까지 내가 모았어요. 엄마가 5만원 쥐주고. 엄마에게 5만원 끈 것은 아르바이트로 엄마 일을 해주고 값기로 했어요. 그 돈 모으려면 일도 많이 하고 아껴야죠. 엄마가 주시는 용돈 말고 세배돈 이런거 평소에 쓰는데 아니고 모아오 다 모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생기면 만화책도 안빌려요. 군것질은 친구한테 빌붙고 많이 안사먹어요. 생일선물은 어쩔수 없이 사거나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제거 중에 하나 주거나 그림이라도 그려주거나. 그래서 돈을 모으죠. 애들이 다 그런거 같어요. 요즘 애들은 다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돈을 써요 가수 좋아하는 애들은 그 가수 나오는 잡지는 다 사요. 5-6가지 다 사요. 옷 사는데 목적이 맞는 애들은 또 끼리끼리 모이니까. 주말마다 뭐 등대문 나간다가나 안양 시내 간다가나. 나는 코스프레...”

면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친구들이 하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재미삼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를 일상의 중심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일상의 무료함, 목적 없음을 달래는 한 대안이 된다. 병선이, 지선이, 그리고 Focus group II의 정기, 정민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냥 놀려고 아르바이트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하기 싫고 뭐 마땅히 할 건 없고... 시간도 막 남아돌구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놀 바에야 차라리 돈이나 벌자. 집에서 빈둥거릴 바에야 시간이나 때우자. 이런 거죠. 아주 열심히 하는 애들 빼면 거의 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듣고 시험볼 때나 당일치기 벼락공부하고... 거의 다 애들 그래요. 막 1,2등 하는 애들 빼고는요... 어차피 평일에는 다 TV보고 애들이랑 농구나 하고 당구치러 가거나, 아니면 PC방 가거나 그거보다 차라리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병선)

“그냥 그 시간 내 어차피 집에서 멍가멍가 노니까 빈둥대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해서 돈버는 게 낫죠. 그니까 돈이 주목적은 아니구요. 그냥...”(지선)

“공부는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빼고는요. 거의 다. 시험때 다 당일치기 해요. 다 그때 닥쳐서 하거든요. 학원 시간 때만 그냥 학원 가고”(정기)

“어차피 있어도요 공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느니 돈이나 벌면 좋잖아요.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정민)

그런가 하면 “하나의 놀이로서” 그리고 “재미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에게는 답답한 집에 대한 대안, 하고 싶은 오락을 부모 눈치 안보고 할 수 있는 기회, 또래가 모여드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꽤 오랜 동안 당구장 일을 도와 준 승철이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병선이도 아르바이트가 재미있는 경험임을 이야기하였다.

“제가 예전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의 삼촌이 당구장을 하셔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맨날 가서 11시쯤에 오고, 1학년 초반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때는 당구실력도 늘고(그때는 돈 좀 꽤 벌었겠네?) 그때는 번 건 아니구요, 그냥 가면.. 형이, 형이거든요.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이 뭐 밥도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당구도 치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다녔죠.”(승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같은 나이또래들이 막 모이잖아요. 또 여러 종류별로 다 모이거든요. 고학생, 대학생...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형들하고 놀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어요.”(병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혹은 소질이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연결시킨 사례는 본 연구의 면접대상 청소년 중에는 없었다. 면접대상 청소년들의 친구들 중에 앞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카페에 나가서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나 백댄서로 들어가서 용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사례를 접촉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 3.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

면접한 15명의 청소년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 이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했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반대였고, 그 밖에 학교생활과 병행하기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점이였다. 부모의 반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

로 지적하는 이유였다.

“해보고 싶은데... 친구들도 많이 해요. 중학교쯤 되면은요. 전단지 같은거도 하고요. 부러워요 하는거 보면은 . 근데 못하게 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걱정하세요. 용돈도 공하지 않은데 그것 가지고 나쁜데다 쓰는거 아닐까.”(미연)

부모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대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숨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모른다. 다음은 Focus group II의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Q: 수광이는 부모님이 아셨어요? 일하는거.

수광: 몰랐어요.

Q: 다들 몰랐어요? 근데 신문 배달은 일찍 나가니까 아셨을 것 아니에요.

정민: 아니요 다들 잘 때 새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딱 자면 몰라요.

Q: 짜장면 배달할때는?

정민: 방학 때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낮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놀다가 그런줄 알고 계실걸요.

Q: 정기는?

정기:엄마는 아르바이트 하지말고요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하면 모르죠. 제가 말 안하면. .

정민이는 아르바이트로 목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살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정민의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제 요구하는 곳도 많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부모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제출해 버리면 그만이다. 병선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모에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리구 들켜서 끌려가고, 외출금지 당하는 아이들이 친구들 중에 꽤 많다”고 한다.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 다음으로 많은 아이들이 언급한 이유는 시간부족과 신체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든 노동이라는 점이었다. 시간상 어려움과 높은 노동강도는 잠시라도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본 후 그만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KFC에서 24일을 일하고 그만 둔 경험을 가진 지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계속 서 있어요. 앉아 있지두 못하구... 근데 돈을 되게 조금 줘요. 한시간 하면 천팔백오십원...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4시 반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11시, 거의 10시 반. 끝나는 시간은 10시인데요. 손님들이 저녁 때 끝나고 되게 많이 와요. 늦게 끝나면 11시에 끝나구 아니면 11시 반. 그러구 먼저 끝났다고 못 가요.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 정도 하고 주말에는 여덟 시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계속 할 수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거 하는 거에 비해 너무 돈이 적어요. 거기서 일 하면 피곤해서 집에 가면 거의 바로 자요.”

친구 지선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다는 현주나 돈 버는 것은 좋지만 너무 힘든 것은 싫다는 수정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만 힘든 일을 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에서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일과 학과공부를 병행할 수 없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이 많고 상충됨을 알 수 있다.

현주: “저희들이 KFC 날마다 갔거든요. 계속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지선이 하는 거 보고... 유니폼 입은 것도 멋있다. 하고 싶다. 그런데 3-4일 일하는 것 보구 그냥 포기했어요. 시간도 없구요. 학원가야 되고 학교 가고 보충수업이랑.”

수정: “돈버는 건 좋은데요. 저도 너무 힘든 건... 싫어요. 시간이 남는다면.. 혹시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인 패스트푸드점 근무나 주유소 일이 보수에 비하여 일이 힘들고 장시간 근무라는 점은 매스미디어 등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비교적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윤호도 이야기하고 있다.

“차가 많으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막 머리 아프고 머리 열나고 그러고 땀도 나고요. 차를 계속 보면은 눈도 희미 희미해져요. 세차가 한 150대 정도 되면 한계에 달하죠, 아주. 다리 빠지는 거죠. (150대, 하루에?) 겨울에는 그레요. 여름에는 한 50대, 70대, 80대 그러는데. 겨울때는 막 2베로 뛰죠.”(윤호)

#### 4.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두가지 매우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지선이, 병선이, 승철이, 현주처럼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다. 경제관념 및 성취감 획득, 시간관리, 직장생활에서의 위계관계 등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다는 등 이들이 언급한 긍정적 내용은 서구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로 지적된 주제들이다.

“배운거 많이 있죠. 돈 버는 거 힘들다는 것,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 사회경험한다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돈 받은 거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오락기를 샀을 때 참 기분이 누가 사준 것보다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벌어서 샀다는 성취감,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병선)

“힘들게 벌어서, 직접 일해보니까 돈버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가지구. 항상 돈 주실 때마다, 받을 때마다 미안한 생각들구 그래요. 16만원 받았거든요. 그니까 통장으로 자동이체되서 들어오니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안 써요 그 돈을. 그리고 시간 관념. 거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랑. 예절,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대해주는 그런 것. 그러구 내가 막내로 들어왔으니까 다 계급이 높을 거 아니에요, 남을 존중해주는 거.”(지선)

“그런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노는 사람들도 있고 돈 벌어서 그날 그날 막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벌어서 대학 공부도 하고요. 지금도 만나고 그래요. 힘들게 일해서 받는게 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정연)

“주유소 사람들이 되게 가족같구 그래요, 진짜. 가끔가다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요. 막 인생이야기. 니들 이렇게 안 살아봤지? 힘들거야. 막 이러구. 사회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커가면서 힘든 것도 많이 듣고, 막 그러니까. 배우는 게 많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솔직히. 돈도 이렇게 어렵게 벌었구나. 벌어가지고 어머니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거 느끼구.”(윤호)

윤호나 정연이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이나 가능성까지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던 사례이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유소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윤호는 자신이 대인관계에 강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힘든 아르바이트를 2년 가까이 지속한 지선은 자신의 끈기, 책임감에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좋고, 고맙더라고요, 손님들이. 막 저 찾아주시는 손님 있으면은 더 뭐라도 하나 더 해 드리고, 막 그러니까 반가와하시고, 주유소 사장님도 운호가 있어서 손님이 많다고 찾아온다고 좋아하시고.”(윤호)

“처음에는 돈 벌라고 갔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조금 하고 그만 둘 줄 알았나봐요. 그런데 계속 나오고 하니깐 조금씩 친해지고 인정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친해지고 친해지니까 좋더라구요. 일 학년 때니까 언니 오빠들도 제가 잘 버티니까 잘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았어요. 만 애들은 하루 나오고 만나오고 하니깐, 나중에는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해도. 제가 안 가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때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가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친구는 그만 두고 저만 계속 했어요”(정연)

그리고 윤호와 정연이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 주유소 일을 하지만 내가 평생 기름밥 먹을 거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는 윤호의 말은 주유소가 자신의 미래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경험의 장이었던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윤호엄마, 그리고 정연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르바이트를 딱 해보더니 그런 소리를 하데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좋은데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데요.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손님들이 와서 “야 너 부모있냐?”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계신데요. 그러면 임마 기름 많이 넣어. 그런데요 반말로. 반말로 해서 기분이 나빴데요. 그러면서 그런 취급 안받을려면 공부해서 대학 가야겠다고.”(윤호엄마)

“저는 KFC에 계속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 갈 수 있거든요. 대학에 못가면 거기 들어가서 매니저가 되거나 그러면서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불어 학원도 다니고 더 공부해서 안정된 다른 직업도 가지고 그럴 꺼예요.”(정연)

그런가하면 놀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주 초점이었던 Focus group II의 아이들에게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다들 일을 조금씩은 해봤잖아요. 지금 일한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정민: 전혀 도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Q: 그렇다면 일해서 좋았던 점은 뭐예요.

정민: 돈 가지고 놀 때, 편하게 내 돈주고 놀 때

Q: 일 자체에서 배운 점 그런 건 없나요?

정기: 전혀.

정민: 오토바이 기술? 돈 벌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없는데.

Q: 남의 돈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런 점 때문에 기분이 좋거나 자부심 같은 것은?

정민: 일했으니까 돈 받는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자부심같은 건 없는데. 그냥 돈 주니까 좋네.

Q: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봤나요?

수광: 하루하고 떼려 칠 때요.

다음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잃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은 첫째,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아르바이트로 목돈을 벌게 된다는 점, 셋째, 아르바이트가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기성세대나 부모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병선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목돈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큰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목돈이 생기니까 절제할 줄 모르고 돈을 쓰게 되며 그때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래들과 어울려 유흥가 출입 등 어른들이 우려하는 비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연이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체계적으로 돈을 잘 못써요. 돈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가지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말기기도 그렇고 드리기도 싫고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한꺼번에 갑자기 막 옷을 산다거나 관리를 못해요. 돈 받은 날 갑자기 막 많이 사먹는다던가, 뭘 과하게 산다던가. 애들도 일하는 데서는 다 잘 하는데 거기서 달라지는 거 같아요. 돈 쓸 때 달라지는 거 같아요 똑같이 일을 해두요.” (병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요. 번 돈을 다 옷 사는데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요 어떤 언니는요. 영화 같은 거 보고, 술 같은 거도 먹고, 다들 희식한다고 먹으러 가고 돈을 다 거기에 써요.”(정연)

한 반에서 소수의 아이들만 공부를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상시 공부를 안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소

게를 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확실히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이었다. 병선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솔직히 공부 영향 되게 받아요. 공부에 뭐 영향 없다 그러는데 피곤해서 아르바이트하면 거의 다 학교에서 자고, 밤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의 공부에 대한 신경을 못써요.”

한편, 어른들이 우려하는 청소년 일탈이나 비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잠재적 문제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면접한 아이들 중 가장 ‘일탈적(?)’ 성격을 보이는 Focus group II의 정민이가 그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로 제기한 점이었다.

“배달 같은 거는요,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돌리잖아요. 잘 노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오토바이는 하루 종일 하다보면 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담배 피우고, 제가 처음 일 한 게 중 1 때였거든요. 오토바이 면허도 안나왔을 때, 그 때는요 목표가 애들하고 어울려 놀려고, 그런데 짜장면 배달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나쁜 길로 빠져요,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래?) 어른들이 못 보잖아요, 그 쪽으로 가면 자꾸 어두운 데로 들어가다 보면 친구들도 많이 알게되고, 선배들도 알게 되고, 영등포 같은데 가서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정민)

스스로는 그런 행동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일탈적 행동을 하는 또래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윤호나 정연이도 언급하였다.

“아르바이트에서 안 좋은 점은.. 가서 더 나쁘게 빠질 수가.. 크게 빠질 수가 있죠. 오토바이를 해갔고 막 오토바이에 미쳐산다.. 나쁜 사람들 만나면은 막 담배도 피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되니까”(윤호)

“그 중에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친구랑 같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언니들하고 이제 그런 언니들 몇몇하고 잘 다니고, 먹으러 가고 어울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술 먹으러 가고 그렇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만 두었지요.”(정연)

한편, 정기나 정민이는 재미삼아,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 시작한 아르바이트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꺼리껴하지도 않았다.

정기: 막 하기 싫어서요. 힘들어서요. 전단지 돌리는 거 같은 거는요. 하기 싫어서  
도중에 막 태워 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정민: 신문배달이요 새벽에만 하잖아요. 오후 타임은 형들이 다 맞구요 저는 새  
벽 네시 다섯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한 동, 두 동 하다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왔어요.

정기: 신문 안 돌렸나?

정민: 버리고 도망쳤어.

이와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긍정적 기회  
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별 뒷 탈이 없는 매우 부정적  
경험을 하는 기회였다고 하겠다.

#### 5.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부모의 관여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면접 청소년들의 부모의 반응은 크게 4가지로 나뉜  
다. 첫째, 절대 반대하는 경우이다. 둘째,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자녀의 아르바  
이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적극적  
관여는 하지 않는다. 셋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아르바이트 과정에 관여하는 부모들이 있다. 넷째,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이다.

Focus group I, II, III 에 속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첫째 유형에 속  
한다. 이런 경우,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숨기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고, 이 사  
실을 모르는 부모가 자녀의 아르바이트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면접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아  
르바이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학업에 지장을 줄까 하는 점과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릴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원인들이다. 승철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할 때 무지 반대했죠.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리고 또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다닐까봐 걱정도 되고, 누가 너더러 돈벌어 오라고 그랬냐. 공부도  
안하고, 더군다나 방학때도 아니고, 우리 승철이는 저기 학교 다니면서 했거든요. 저  
아빠도 너 대학가면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하고 다 할텐데 지금은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해야지 왜 그런걸 하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대학간데요 걱정말래요. 그런데 친  
구가 소개시켜 준거라서 그만 못둔대요 한달은 채워야지.”(승철엄마)

둘째 유형에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한번 해보거라”라고 허용한 지선의 부모가 속한다.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적극적 관여를 한 세 번째 유형에는 윤호의 부모를 들 수 있다. 윤호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을 하였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직접 주유소를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도록 주선을 한 사례이다. 윤호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엄마나 아버지가 나를 어디 일할 데를 주유소 같은 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서가 있어야 된데요. 그래서 우리 애 아빠가 그럼 여기 가까운데 어디 주유소를 알아봐 줄게. 그럼 니가 정 벌고 싶으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의외로 잘했는지 이번 방학 때도 거기서 또 오라고 불렀잖아요. 작년에 한 그 집에서.”

네 번째 적극적 권유 유형에는 병선이의 부모가 속한다. 병선이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권유하여 초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례이다.

“아빠가 일부러 시켰어요. 돈에 관한 게 아니라 뭐 사회경험이라고, 해봐야 된다고, 아빠도 어렸을 때 했다고.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아빠 이론이 그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해봐라 니가. 경험한 사람이 경험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거. 그래서 처음 한 것이 신문배달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전 겨울에 아빠랑 같이 막 추운 겨울에 한달. 그 돈 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버렸으면 그게 없을 텐데 불우이웃돕기를 냈어요. 그게 의미 있었나. 우리 아빠는 특이하지요. 제 친구들 보면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면 ‘용돈 올려 줄테니 하지마라’ 엄마 아빠가 거의 다 그러는데.”

이렇게 시작한 병선이의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계속된다. 1학년때 10개월 정도 신문배달을 했고, 방학동안 아버지 사업하시는 건축현장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이모부가 하는 공장에서 종이상자를 프레스로 찍고 나르는 일을 해서 임금을 받기도 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의 부모는 대체로 절대 안된다, 공부나 하거라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지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간 거 아녜요, 그러니 공부에 집중을 해야죠”라는 민아 엄마의 반응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실업계 남학생들의 부모는

약간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윤호나 승철이 엄마도 아들의 대학입학 걱정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인문고에 비하여 같은 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들 부모의 허용적 태도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부모가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윤호나,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병선이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관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과 긍정적 피드백,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은 돈의 사용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호엄마의 경우, 윤호의 일터에서 생긴 일에 대해 수시로 윤호에게 묻고 윤호가 하는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하는 적극적 관여를 하였다. 또한 윤호가 일하는 주유소 주인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로부터 받은 윤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윤호엄마를 통하여 윤호에게 전달되어 윤호가 긍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한다.

“윤호 엄마, 오늘은 윤호가 만나왔네요. 그러면 예 윤호가 곧 나갈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주인이 윤호가 일도 잘하고 인사성 밝고 그런다고 그렇게 좋아하구요 뭐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로서 좋죠. 어디선가 한자리에서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좋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윤호도 좋아하고 너 일 다니니까 어떤 생각드냐 물으면, 그러니까 엄마 일을 해보니까 밥맛도 좋고 거기 있는 형들, 대학교 형들 만나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한마디만 해도 배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에 한가지씩만 배워왔고 와라. 그 형들이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너, 공부 열심히 해. 대학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 이 형은 여기 아르바이트 하는거는 학비대려고 그러는거야. 그 형들이 그랬데.”

그리고 부모의 관여정도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쓰는 과정에서의 많은 차이로도 나타난다. 윤호, 병선이, 윤호엄마 그리고 승철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달 월급으로, 딱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처음에 십만원짜리로 여섯장. 여섯장 딱 받고 엄마한테 드리니까요... 엄마는 솔직히 기분 좋아하시죠. 제가 원래 첫 월급 타면... 막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어머니 무슨 속옷 사드리고 그래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사이즈도 모르고 아버지 사이즈도 모르니까 일단 돈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돈 갖다 드렸죠.”(윤호)

“엄마, 형들이랑 주유소 사모님이랑이 그러는데 첫 월급 타서 속옷도 사다 드리고

그래야 한다는데 엄마 나는 속옷 살 줄 모르니까 돈 갖다 드릴테니 엄마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구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 담배 한 보루랑 버선 사다 드리구 다 했어요. 그 돈으로.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다 니가 돈 벌은걸로 어른 쟁길 줄 알고 그러니까 니가 뺏심 들어서 벌어서 이렇게 쓰는거도 저거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시는거야. 그랬더니 윤호가 엄마 다른 엄마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벌은 거니까 내가 싸야지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엄마가 다 하니깐 엄마도 빛나고 나도 칭찬 받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싱글벙글하고.”(윤호엄마)

“지난번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아빠가 그러라고 하셔서 불우이웃돕기를 낼 때는 상당히 아까웠지만, 그래도 내고나서는 뿌듯함 그런거...그리고 돈 받아서 엄마한테도 약간 용돈 주면, 그래도 다 다시 나한테, 더 많이 도루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레 두 보람같은 거 느끼구.”(병선)

“(그거 벌어가지고 뭘하려고 그런다고 하던가요?) 옷 사입고 뭐 친구들과하고 놀러가고 그런다고 그러지요 뭐. 엄마가 용돈 많이 안주니까 지가 벌어서. 그레가지구 그레 너가 한번 벌어봐라. 나중에 하도 말려도 안되니까. 돈벌기가 얼마나 힘든가 벌어봐라 그런거지요. 그랬더니 17만원인가 얼마를 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얼마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엄마를 주냐고. 그럼 동생 용돈이나 줘라 니가 벌었으니까. 그랬더니 싫다고 해서 통닭 두마린가 시켜서 같이 먹고 나머지는 지가 다 쓴 거지요. 뭐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했다고 턱내라고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PC방 가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사먹고 그랬더니 금방 썼나봐요. 재가 돈이 있으면 헤퍼요, 있으면 헤퍼게 쓰니까 될 수 있는데로 한꺼번에 용돈을 만취요.”(승철엄마)

윤호와 병선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쓰는 과정에서의 부모의 지도로, 돈을 보람있게 썼다는 생각이 이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였지만 부모가 별로 관여하지 않은 승철이 부모의 경우, “돈이 생기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꺼번에 생기면”이라고 고백한 승철이가 현명한 소비를 배울 수 있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행 경험에 대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서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그 경험의 내용, 청소년들

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된 부모자녀간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탐색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 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없고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만 무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동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며,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지각하는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어떤 형태와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없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 결과,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부 불량 청소년이나 불우 청소년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강남, 강북, 수도권권을 막론하고, 그리고 인문고와 실업고 모두에서, 남녀학생 구별 없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있었다. 문제는 그 아르바이트 기회가 패스트푸드, 주유소, 배달일 등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어른들은 면허가 없는 아이들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하고, 꼬박 서서 하는 노동에 한시간 2,000원 미만의 임금을 주며, 부모의 동의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한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성취감, 자신감, 자아 존중감의 상승 등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아이들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의 폭이 컸다. 일을 한 청소년 개인의 성향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일터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일터에서 얼마나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는가 하는 점과 부모가 얼마나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였다. 비록 아르바이트의 시작이 일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더라도, 목표가 뚜렷하였던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 어려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 자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은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많은 긍정적 측면을 발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일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을 쓰는 과정까지 아주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음도 보였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 서구의 연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태학적 환경특성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우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어떠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고용주는 청소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겠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나 하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일찍부터 소비욕구에 눈뜨는 요즘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제능 그리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간의 진정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어른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립심, 책임감과 경제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서구의 시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는 후속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이 일반화가 가능한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참 고 문 헌

- 안영노(1994) 신세대: 그들의 정치경제. 현실문화연구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 조한혜정, 2000년 6월 28일 중앙일보.
- 한겨레 21, 321호, 2000년 8월 17일. 좌취당하는 중딩, 고딩들. 28-29.
- Arnett, J.J.(2000). High hopes in a grim world, *Youth and Society, Vol. 31, no. 3*, pp. 267-286.
- Aronson, P. J., Mortimer, J. T., Zierman, C., & Hacker, M.(1996). Generational differences in early work experiences and evaluations. In Mortimer, J. T., & Finch, M. 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25-62, Thousand Oaks: Sage.
- Bachman, J. G., & Schulenberg, J.(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fy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 220-235.
- Call, K. T.(1996). Adolescent work as an "Arena of Comfort" under conditions of family discomfort. In Mortimer, J. T., & Finch, M. 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29-166, Thousand Oaks: Sage.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Y: Basic Books.
- Hansen, D.M.(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Vol. 31, No. 4*; pp. 417-437.
- Hurrelmann, K., & Hamilton, S. F.(1996).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exts in adolescence: perspectives across boundaries*. NY: Aldine de Gruyter.
- Lin, N., Ensel, W. M., & Vanghn, J. C.(1981). Social resource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ivew, 46*, pp. 393-405.
- Markus, H., Cross, S., & Wurf, E.(1990).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Steinberg, R. J., & J. Kolligan, Jr.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205-226.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iller, J., & Young, S.(1990). The role of allowances in adolescent socialization. *Youth & Society, 22(2)*, pp. 137-159.
- Mortimer, J. T., & Finch, M. D.(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pp. 66-89. Norwood, NJ: Albex.

Mortimer, J. T., & Finch, M. D.(1996). Work, Family,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Mortimer, J. T., & Finch, M. 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24. Thousand Oaks: Sage.

Pimentel, E. E.(1996). Effects of adolescent achievement and family goals on the early adult transition. In Mortimer, J. T., & Finch, M. 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91-220. Thousand Oaks: Sage.

## ABSTRACT

### **A Qualitative Study on Part-Time Work Experiences of Adolescents**

Han, Gyoung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rt-time work experiences of adolescents in Korea, from the adolescent's perspective. Specifically, we wanted to know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part-time job, and the effects of the part-time job on the everyday lives of adolescent and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We gathered qualitative, in-dept data from 15 adolescents and four mothers who have teenage children, through person-to-person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he main questions guided the interview process were: What did the adolescent respondents think they learned from part-time job experiences,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arents, and how positive/negative experience it was for the adolescents? Interviewed adolescents and mothers were encouraged to give their own accounts of their experiences surrounding the adolescents' part-time job.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great variability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work experiences among the adolescent respondents depending on the contexts of working, i.e. character of tasks on which adolescent work on, the natur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the job, their own accounts of their experiences, and the support and positive feedback from the par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we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quality, social meaning and context of adolescent work instead of assuming that having a job has harmful effects on the adolescents.

---

\* Seoul National University